

## 기도의 사람이신 그분에게서 배우도록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심

성경: 마14:19, 22-23, 6:6

- I.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시면서 주님은 그분에게서 배우도록 그분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다—마11:29
  - A.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기는 쉽지만 이러한 큰 기적을 행하신 분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는 생명의 더 깊고 큰 공과를 알려면 계시가 필요하다—참조 25절.
  - B. 이러한 공과들은 내재적이고 더 깊으며 생명에 속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사람의 생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산 공과들을 배워야 한다.
  - C. 마태복음 14장 19절은, 그분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시고 축복하려 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고 말한다
    1.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은 그분이 그분의 근원, 즉 하늘에 계시는 그분의 아버지를 우러러보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 a. 이것은 축복의 근원은 그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 아셨음을 가리킨다. 보내심을 받은 이가 아니라 보내신 분이신 아버지가 축복의 근원인 것이다—참조 롬11:36.
      - b.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든지 얼마나 할 줄 알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에 보내신 분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공급의 통로들이 될 수 있다—참조 마14:19하, 민6:22-27.
    2. 그분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우러러보신 것은 그분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땅에 있는 아들로써 아버지와 하나였고 아버지를 의지하셨음을 가리킨다—요10:30
      - a. 내가 아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주님과 하나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사역에서 모든 것을 의미한다—참조 고전2:3-4.
      - b. 축복은 오직 우리가 주님과 하나되고 그분을 의지하는 데서 온다—참조 고후 1:8-9.
    3. 주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셨다—요5:19, 참조 마16:24
      - a.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으로부터는 어떤 것도 할 의도를 갖지 말아야 하며 다만 모든 것을 그분으로부터 할 의도만을 가져야 한다.
      - b.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자아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다른 생명에 의해 살아야 한다—빌1:19-21상.
    4. 주님은 그분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으시고 그분을 보내신 분의 뜻만을 구하셨다—요5:30 하, 6:38, 마26:39, 42
      - a. 그분은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의도, 그분의 목적을 거절하셨다.
      - b. 우리 모두는 이 한 가지—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보내어질 때 그것을 우리 자신의 목표를 구하는 기회로 취하지 않고 다만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생각과 목적과 계획과 목표와 의도를 구하려 가야 한다는 것—에 깨어 있어야 한다—참조 딤후 5:2하.
    5. 주님은 그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다—요7:18, 5:41, 참조 12:43
      - a. 야심적인 것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참조 요삼9.
      - b. 우리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야심이 우리의 일을 파괴하는 세 가지 큰 '벌레'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들을 미워하기를 배워야 한

다.

- c.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서 항상 주님에게 사용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자아는 부인되어야 하고 우리의 목적은 거절되어야 하며 우리의 야심은 반드시 버려져야 한다—마16:24.

## II. 기적을 행하신 후에 주님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마14:23, 참조 눅6:12

A. 주님은 무리와 함께 기적의 결과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산에서 기도하시며 아버지와 함께 계시기 위해 홀로 그들을 떠나 가셨다

1. 홀로라는 말은 아주 의미 깊은 것이다. 이것은 그분이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음을 의미한다

a. 주님은 아버지께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시려고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떠나게 하셨다—마14:22-23절.

b.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홀로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는데, 이는 천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아버지와 하나 되시고 땅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버지와 함께하시기 위함이었다.

2.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6:6

a.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는 주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처럼 주님을 깊이 누릴 수 없다.

b. 왕국 백성은 반드시 그들의 골방에서 기도하며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그들의 하늘의 아버지를 접촉하고 아버지를 은밀하게 누리는 체험을 하며 그분으로부터 어떤 은밀한 응답을 받는 체험을 가져야 한다

(1) 자아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을 즐긴다는 사실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다. 자아는 영광을 얻기를 좋아하고 육체는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2)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지 않고 매일 기도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건강하며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당신이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보상을 잃을 뿐 아니라 생명 안에서 자라지 못할 것이며 건강하지도 못할 것이다—참조 13:6.

3. 우리는 무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과 교회 안의 성도들을 떠나 ‘높은 산’에 있는 더 높은 수준으로 가서, 무리로부터 분별되어 따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은밀히 그분과 친밀한 교통을 갖기를 배워야 한다—참조 출33:11상.

B. 그분이 홀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신 것은 그 기적이 가져온 누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시어 그들이 썩을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거하는 양식을 추구하게 하시기를 아버지께 구하셨음을 가리킨다—요6:27.

C. 그분이 홀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신 것은 또한 그분이 그분의 기적으로 먹인 오천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관해 아버지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